

## 윤리와사상

1. 정답 : ㉓

해설 :

### 동학에서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최제우이다. 최제우는 경천(敬天) 사상과 유불도 사상이 조화를 이룬 민족 종교인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고, 인본주의,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신분 차별, 남녀 차별, 노소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人乃天],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임[吾心卽汝心]을 강조하였다. **정답 ㉓**

### [오답피하기]

- ㉑ 일원상(一圓相)은 박종빈이 창시한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의 표본이다.
- ㉒ 동학은 오륜을 부정하지 않으며, 서양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 ㉔ 소요(逍遙)는 인간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장자의 주장이다.
- ㉕ 연기(緣起)는 우주 만물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맺어져 있다는 것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이다.

2. 정답 : ㉓

해설 :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로, 이것은 중간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며 인간의 행위 역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이란 덕에 일치하는 영혼(정신)의 활동이다(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지성적 덕으로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이다(ㄹ). **정답 ㉓**

### [오답피하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달리 앎이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앎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앎이 덕행으로 나타나도록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예 : 질투, 절도)에는 중용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와 관련된 중용이 모든 행위와 감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무조건 잘못된 감정과 행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정답 : ㉕

해설 :

### 자유 방임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미스이고, 을은 케인스이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제시하였다. 케인스는 시장 경제에서 시장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제시하였다.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ㄷ). 스미스와 케인스는 공통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따른 이익 추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㉕**

### [오답피하기]

- ㄱ.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원동력은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에 있다고 본다.
- ㄴ. 스미스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반대한다.

4. 정답 : ④

해설 :

**주자학과 양명학의 핵심 사상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가)는 왕수인의 주장이다. 그는 앎[知]은 행함[行]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가로 낱말 (A)는 언행일치(言行一致), (B)는 지혜(知慧)이므로, 세로 낱말 (C)는 치지(致知)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고, 격물치지를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개별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왕수인은 도덕적 인식[知]과 도덕적 실천[行]은 본래 하나라고 본다.
- ② 왕수인의 치지는 경전에 대한 학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양지를 확충하여 지극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주희의 격물치지에 대한 입장이다.
- ⑤ 주희의 심통성정(心統性情)에 대한 설명이다.

5. 정답 : ②

해설 :

**듀이의 실용주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듀이이다. 듀이는 하나의 사물이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동의 도구로서 갖는 가치이며, 어떤 생각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것의 유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듀이는 지식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때 가치를 갖는다고 보며, 확실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듀이는 과학과 도덕은 모두 삶을 개선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③ 듀이는 지식은 인간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데 기여하는 도구적 역할을 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④ 듀이는 이론과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가 될 때 가치가 있다고 본다.
- ⑤ 듀이는 지식은 오류를 거듭하면서 진화하며 진화를 거듭한 지식은 사회에 더 잘 기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6. 정답 : ①

해설 :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타고났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절대 군주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로크에 의하면 시민은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입법부에 저항할 수 있다.
- ③ 루소는 법은 일반 의지의 행동이고 군주도 국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군주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루소에 의하면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 ⑤ 로크와 루소에 의하면 사회 계약 이후 국가는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이 있다.

7. 정답 : ④

해설 :

**롤스와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의미는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순수 절차적 정의는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없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있다고 본다.
- ③ 순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정의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순수 절차적 정의는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그러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있다고 본다.

8. 정답 : ④

해설 :

**원효와 지눌의 불교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인간답게 사는 길은 존재의 원천인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지눌은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習氣)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효는 '걸림이 없는 실천의 방법'인 무애행(無碍行)을 통하여 불교를 대중화하고 보편화하였다(ㄱ).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 선정(禪定)과 지혜(知慧)를 함께 닦아나가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ㄷ). 원효와 지눌은 모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원효는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9. 정답 : ④

해설 :

**노직과 마르크스의 정의관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직, 을은 마르크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개인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라고 본다. 노직은 마르크스와 달리 소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ㄱ). 노직은 국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빈곤은 그의 생산력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본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노직에 의하면 노동 투입만으로 최초 취득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 취득 과정에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10. 정답 : ①

해설 :

**상대주의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똑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타고라스는 세계는 각각의 인간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진리는 인간의 주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ㄱ).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은 덕이고 덕은 행복이므로 참된 앎과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 ㄹ. 소크라테스는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으로 알게 된 보편적인 진리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11. 정답 : ①

해설 :

**순자와 장자의 사상적 특징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순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장자는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순자가 덕과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겨야 할 것을 강조하지만 재화의 균등 분배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순자는 구성원 각자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장자는 인의를 끊고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순박한 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장자는 인의(仁義)와 예악(禮樂)을 버린 이후에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차별(差別)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본다.
- ⑤ 순자는 인간 본성이 자연히 생성된 사람의 본능이라고 본다. 장자도 인간의 본성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일체의 인위적인 것이 없다고 본다.

12. 정답 : ②

해설 :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다른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며,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본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부재로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가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강조하지만, 모든 정념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 ③ 에픽테토스는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 ④ 에픽테토스는 세계가 이성적인 전체로서 신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본다.

13. 정답 : ③

해설 :

**이이의 이기론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다. 이이는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 즉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만이 옳다. 이이는 형태가 없는 이는 만물에 두루 통하고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된다는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이이는 이는 무형(無形)이고 무위(無爲)라고 본다.
- ② 이이는 칠정을 선과 악이 합쳐진 감정이라고 본다.
- ④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소이(所以)는 이라고 본다.
- ⑤ 이이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을 변화시킬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4. 정답 : ⑥

해설 :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으로 실정법, 자연법, 영원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실정법은 이성의 명령인 자연법에 근거하고, 자연법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① 실정법은 신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다.
- ②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의 능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변화될 수 있다.
- ④ 영원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연법은 성립될 수 없다.

15. 정답 : ②

해설 :

**장자와 석가모니의 죽음관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장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장자는 마음속에서 대상에 대한 욕심으로 물든 성향을 씻어내면 무위(無爲)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무명(無明)과 애욕(愛慾)이라고 하고 무명과 애욕을 없애면 더이상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장자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 현상으로 인식한다(ㄱ). 불교에서는 해탈하기 이전까지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본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장자는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ㄷ. 장자는 업(業)에 의해 내세가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16. 정답 : ③

해설 :

**칸트의 윤리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며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라고 본다. 칸트에 따르면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선의지에 따른 행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우연적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그 행위의 결과로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칸트에 따르면 자율적이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 ②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할 수 없다.
- ④ 칸트에 따르면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⑤ 칸트에 따르면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보편화가 가능해야 한다.

17. 정답 : ⑥

해설 :

**덕 윤리와 배려 윤리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덕 윤리를 체계화한 매킨타이어, 을은 배려 윤리를 제시한 길리건이다. 덕 윤리에서는 덕망이 높은 인간을 도덕적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그들을 닮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배려 윤리에서는 보편적·추상적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정의 윤리를 비판하고, 배려와 공감의 가치도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덕 윤리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적 맥락과 관련하여 형성된다고 본다(ㄱ). 배려 윤리는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를 구분하고 양자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한다(ㄴ). 덕 윤리와 배려 윤리는 모두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삶의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ㄷ). **정답 ⑥**

**[오답피하기]**

- ㄴ. 길리건은 권리와 함께 배려도 도덕성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18. 정답 : ⑤

해설 :

**노자와 맹자의 이상적 인간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 을은 맹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가 사라지자 인의(仁義)나 예(禮)와 같은 인위적 규범과 거짓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본다. 맹자는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지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춘 인간인 대인(大人) 또는 대장부(大丈夫)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한다. 노자와 맹자 모두 부단한 수양을 거쳐 이상적인 인간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노자와 맹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③, ④ 노자는 부정, 맹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9. 정답 : ②

해설 :

**흥과 밀의 윤리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흥이고, 을은 밀이다. 흥은 공감(共感)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도 공감의 능력 때문이라고 본다. 밀은 벤담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흥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 ③ 공리주의에서는 개인의 쾌락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④ 밀에 따르면 쾌락의 질의 높고 낮음은 쾌락의 양의 많고 적음에 상응하지 않는다.
- ⑤ 공리주의에서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보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20. 정답 : ④

해설 :

**이황과 정약용의 유교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 을은 정약용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라고 본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 즉 기호라고 본다. 정약용은 기호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지(靈知)의 기호와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형구(形軀)의 기호로 구분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이황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라고 보았다.
- ② 이황은 사욕을 제거하기 위한 수양으로 주일무적(主一無適)을 중시한다.
- ③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은 모두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덕이라고 본다.
- ⑤ 이황과 정약용 모두 사단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본다.